

〈2027 6月 모의평가 총평〉

1. 난이도: ★★★★★☆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고, 2026학년도 수능보다 아주 약간 쉬웠습니다. 객관적인 오답률 데이터만 봐도 그렇습니다.

2. 불 만한 문제와 간단한 코멘트

1) 21번

글의 화제, 서술은 지극히 평이합니다. ‘동물에게도 의식이 있음’이라는 내용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After all’ 이후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면 ‘동물의 의식은 없음’이라고 이해했을 것이고, 과대 해석하는 버릇이 있다면 ‘인간보다 동물이 우월하지 않다는 뜻인가?’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잘못 생각했을 때 선택지에 그 내용이 없다면 평이한 문제이나 안타깝게도 둘 다 있습니다. (각각 1번, 3번/4번)

2) 31번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31번,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31번과 성격이 동일합니다. 가시적 단서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를 제대로 분류하지 않으면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특정 정답 선택지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두 번째 문장에서 ‘거의 동의어’라는 표현이 나와서 ‘두 용어(P & C)는 똑같음!’에 초점을 두고 뒤에 등장하는 단서(distinguish, criticize, rather than)을 무시하면 그대로 4번을 고르게 됩니다.

3) 34번

글의 내용은 평이하나(작품 가치가 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작품이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라 믿고 수집함) 각 정보들이 흩어져 있고 그 정보들을 합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핵심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 선택지 판단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정 단어에 집착했다면 3번 선택지, 과대 해석했다면 2번, 5번 선택지를 고르게 됩니다.

4) 37번

이제는 각 문장(들)간 논리적 연결이 적절한지 따지는 과정이 필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항입니다. (A)와 (B) 중 누가 먼저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A)의 thus 이후 내용과 (B)의 그것의 범주가 동일하고, (A)의 전반부 내용이 더 넓은 범주임을 파악해야 정답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가장 어려운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3. 조언

이제는 해석만으로 정답을 낼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각 문장의 관계를 파악하고, 핵심 내용을 간추리는 과정을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단어 공부, 해석 공부는 기본입니다.